

NASA의 요청을 받아들여 협력하게 되면 우리는 뒤쳐진 우주기술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현재 NASA는 한국이 개발한 '루나(달) 콘크리트'와 달에 건물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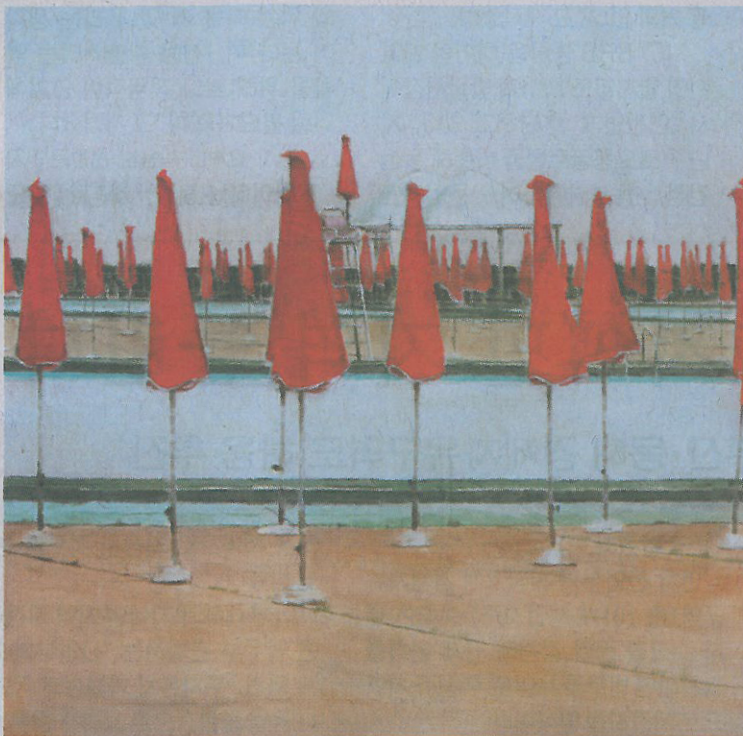
도 NASA 본사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한다. 현재 김승조 항우연 원장이 NASA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원호섭 기자

대한항공
 07-30-2013
 정답은 4
 최병익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국제갤러리(주)

그림이 있는 여름

파라솔 노충현作



개장시간을 앞둔 수영장의 빨간 파라솔이 암전히 접힌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한강 망원지구 수영장의 조용한 모습이다.

조금 지나면 어디선가 인파가 몰려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중견 작가 노충현(43)은 서울의 속살을 모호하고 건조하게 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그는 먼저 사진으로 찍은 다음 유화 작업을 시작했다. 곧 피서 인파로 몸살을 앓게 될 도심 속 수영장의 '폭풍 전야'를 보는 듯하다.

캔버스에 유화, 115×115cm

이향휘 기자